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위한 만찬사

존경하는 원자바오 총리 각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녁, 아주 가까운 나라의 귀한 손님을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각하께서는 대한민국을 처음 찾아주셨습니다. 좀 늦었다 싶은 방문이라 더욱 반갑습니다. 총리 각하와 일행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총리와의 만남은 이번이 아홉 번째입니다. 만날 때마다 저는 각하의 폭넓은 식견과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각하께서는 우리 국민에게도 아주 인기가 높은 지도자이십니다.

총리께서는 그동안 개혁·개방에 대한 확고한 소신으로 매년 9%가 넘는 경제 성장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평민총리'라 불릴 만큼 검소하고 겸손한 성품, 그리고 서민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위민정치' 철학은 중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 정치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하에 대한 중국 국민의 애정과 신망이 결코 근거 없는 거품이 아니라 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각하의 지도력과 중국 국민의 역량이 중국을 더욱 풍요롭고 '조화로운 사회'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총리 각하,

우리 두 나라의 우호협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이미 우리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자 투자 대상국입니다. 우리 또한 중국의 세 번째 교역 대상국입니다. 하루 1만 3천 명 이상이 양국을 오가고, 중국에 있는 우리 유학생만 5만 명을 넘어설 만큼 인적 교류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이후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각하와의 회담은 이러한 양국의 긴밀한 우호를 거듭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교역과 투자·IT·과학기술은 물론 노동·환경 분야에 이르기까지 실질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중 교류의 해'를 맞아 문화·학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간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국정부는 그동안 6자회담 의장국으로써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중국정부에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국이 그동안의 선린우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 협력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평화롭고 번영된 동북아 시대를 열어 가는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귀빈 여러분,

총리 각하의 건강과 우리 양국의 영원한 우의를 위해 축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배!